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음 8월 23일) 제190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음식 · 공예 · 관광 하나로

전주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윤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전주 원도심 일원에
편집샵 · 명품 · 공방거리
조성 등 추진키로

식기류와 테이블보, 조명과 같은 테이블웨어 산업 육성에 나선 전주시가 추진해온 전주 테이블웨어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테이블웨어는 그릇과 접시, 잔, 수저 세트 등 식기에서부터 식탁보(테이블러너), 조명 등의 소품, 식탁, 의자 등 공간배치를 이루는 종합적인 미식 관련 콘텐츠다.

테이블웨어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세계에서 맛의 고장으로 인정을 받은 전주시의 음식산업과 공예산업, 관광산업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11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정이 전북공예인협회장, 오태수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김소연 한국도자기 디자인 실장, 최봉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등 각계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테이블웨어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주에서 생산된 테이블웨어 관련 소품들을 한데 모아 전시·판매하는 테이블웨어 산업 편집샵 조성 및 명품·공방거리 조성 등 테이블웨어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또한, 전주 원도심에 조성될 테이블웨어 산업 클러스터의 세부 구축 공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전주 테이블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 시장동

향, 입지조건, 우선 수행과제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도 진행됐다.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창의도시로서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식여행지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간문화재를 보유한 도시로서 장인정신이 시민생활 속 깊이 뿌리내려 다양한 수공예품이 생산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추진되는 '전주 테이블웨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음식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한지와 도예, 공예 등 핸드메이드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전민의 블루어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또 중간보고회에 이어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세부 추진 계획 및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용역을 통해 도출된 사업의 당위성 및 논리를 보강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전주 원도심에 테이블웨어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한옥마을 1,000만 관광객 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관광 및 예술인 창작, 소상공인 육성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요리와 함께 식기도구, 테이블보, 조명 등 테이블웨어산업의 범위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 단순히 먹는 것에서 벗어난 고품격의 라이프스타일을 선호하는 현대 사회에서 럭셔리한 소비 지향성이 반영되는 테이블웨어산업의 글로벌 시장은 2020년까지 약 46조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며 "세계가 인정하는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백반, 한식 등 전주의 음식문화에 한지와 수공예 등 지역의 강점을 더한 테이블웨어 산업을 육성해 관광경제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국체전 필승 다짐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전북선수단 결단식이 11일 오후 3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조병성 전주매일 대표와 출전 선수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전대에서 큰잔치

전북방문의 해 맞아 오늘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
세계의상 퍼레이드 · 전통문화 체험부스 운영
KT&G 상상플러스서 유학생 대상 이벤트 진행

전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 가족들이 어우러지는 '2017 전국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12일 오전 10시부터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과 전라북도가 공동 주관하는 전라북도 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에 재학 중인 외국인들이 각국의 문화와 이해하고 소통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대 이남호 총장과 송하진 도지사, 외교부 박진웅 국제관계대사를 비롯해 유학생 및 가족 등 5천여명이 참석한다.

또한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중국 중남민족대학 공연단, 베트남 호치

민 과학대학 공연단, 필리핀 코딜라 공연단이 축제에 참가해 의미를 더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26개국 50여명의 유학생이 펼치는 세계 의상 퍼레이드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상설뮤지컬 '해적' 등이 공연되며 '신관사또전' 마당극과 한국음악 및 전통주 체험, 전주 전통한지부채 제작 등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특히 KT&G 상상플러스에서는 웰리그라피, 석고방향제 등을 준비하여 이날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한국문화 및 시사 상식 등의 퀴즈

를 풀어보는 '도전골든벨'도 이날 오후 총장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또한 행사 현장에는 전북지역 유학생지원센터, KOICA, 법률지원센터, 의료관광재단 등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가운데 유학생에게 한국 생활 정보, 의료 법률 및 해외봉사 및 교류 등에 관한 자료 등은 안내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 전북대 언어교육부가 운영하는 폴리카켓(버룩시장)과 선배 유학생이 후배들을 위해 준비한 나눔 행사, 유학생 간 물물교환 등도 진행된다.

이남호 총장은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인 우리대학에서 전국 유학생들의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은 기쁘게 생각한다"며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전북에서 전북의 맛과 멋, 그리고 전통의 아름다움을 안고 돌아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문 대통령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실효성 있게 준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4차산업혁명과 이를 이끌 성장 전략인 혁신성장과 관련해 "대응 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주재한 제1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연설을 통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조기에 수립해주시 바란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에 맞춰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립니다. 4차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지능정보화사회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 주는 한편,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에 정부 내 부처는 물론, 민간과 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 아래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0~2017 8년연속 문화관광축제

순창의 전통장(醬), 세계인의 일품소스(SAUCE)

제12회 순창장류축제

2017 순창 세계소스박람회

2017.10.20(금)~10.22(일)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 * 순창읍내, 공설운동장 앞 ↔ 축제장 셔틀차량운영
- * 붉은옷 착용시 축제장 상품구매 할인 혜택
- * 축제 대표 프로그램
 - 2017인분 고추장 떡볶이 파티
 - 장류 주먹밥 모자이크 만들기
 -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 고(鼓)추(秋)장(場)락(樂) 퍼레이드
 - 화끈락(樂) 페스티벌
 - 우리가족 떡볶이 만들어먹기, 전통장류 소스만들기 등
 - 민속마을 불빛쇼(EDM), 좀비야 놀자 등 야간 프로그램 운영

주최/주관: 순창군/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www.jangfestival.co.kr